

(이) (달) (의) (제) (언)

영농준비에 만전을...
모두가 밝은 마음으로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홍기창

올해는 육십갑자(六十甲子)로 말하면 두번째 순서가 되는 해인 을축(乙丑)년으로서, 이른바 소의 해이고 보니 특히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반가운 새해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예로부터 소가 영농에 절대적인 존재이었을 뿐 아니라, 그 우직(愚直)하고도 성실한 성품, 강한 인내력과 실천력등은 우리 인간에게 무언중 커다란 교훈을 주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올해는 대풍을 기약할 수 있는 밝은 새해일 것으로 확고한 기대를 결대 된다. 그러기에 이제야말로 새해를 알차게 꾸며 나가기 위해서 보다 짜임새 있는 영농설계와 더불어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흔히들 짜임새 있는 영농설계라고 하면,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잘 살기 위해서 출발했다면, 결국 영농설계의 초점은 농가의 소득을 보다 높여 나가는데다 맞추도록 하면 될 줄로 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은 율조상 때 부터 이어 내려오는 경험주의적인 영농기술로서 주먹구구식인 영농을 해왔기 때문에 힘 많이 들이고 이에 비에 얻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결과를 달게 받아야만 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농가는 식량을 얻기 위한 소위 식량자급농업(食糧自給農業)을 해왔기 때문에 영농에서 생산기술(生産技術)은 어느 정도 중요시 되었으나 경영기술(經營技術)은 도외시 당하기가 예사이었으므로 영농설계란 참으로 엉성한 것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었던 경우도 허다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오늘 같이 선진농업을 눈 앞에 보면서, 농가소득을 극대화(極大化)시켜 나가야 할 입장에서는 진실로 짜임새 있는 영농설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3방향으로의 검토필요

영농체계를 어떻게 세워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대개 3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가해져야 할 줄로 안다. 첫째 자기에게 주어진 영농에 관여하는 모든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

다. 영농이란 생산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설사 한가지 보탬이나 또는 빠짐이 있는 상태에서 여건이 다루어졌을 때, 그만큼 설계내용은 허구성(虛構性)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농사에 관여하는 여건은 매우 많으므로 잘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 가령 자기의 영농 경영규모(經營規模)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작지 중에서 과연 논은 얼마나 되고 또 밭은 얼마나 되나. 경작지의 지세(地勢)나 입지조건(立地條件)은 어떠한가. 특히 토질이나 또는 시장(市場)과의 거리로 보아 어떠한 작목(作物)이 유망한가. 영농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일손사정은 어떻게 되나, 자가노력(自家勞力)은 얼마나 되며, 모자라는 품을 얼마나 사면 될가. 올해의 영농자금(永農資金)은 어느정도 번동을 해야 되겠는가. 이때에 번동을 한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어디서 구할 것인가. 위에서 열거(例擧)한 여건들은 하나하나 면밀 정확하게 검토 파악되어야 하겠는데 이와 같은 연사(年事)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줄로 안다. 둘째로 영농설계는 생산기술과 경영기술 두가지 면에서 검토되는 가운데 다듬어져 나가야 한다. 따라

서 이를 위한 자기의 자질(資質)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겨울에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은 충실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촌지도소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여 이른바 과학적인 영농을 모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생산비를 될 수 있는대로 줄이는 방향에서 영농실체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줄로 안다, 흔히 말하는 영농의 생력화(省力化)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기계화영농(機械化營農)을 어떤 작업에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 또 농업은 잡초와의 투쟁이라고 까지 말한 사람이 있는데 제조제는 화학적인 생력농법의 대표적인 경우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제조제를 어느때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생력농법의 일환으로 육묘재배(育苗栽培)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제창되고 있거니와 과연 이에 적용을 받을 만한 작목이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작목중에 있는지 살펴본 다음 과연 이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육묘재배를 위한 별도의 준비도 해야 한다. 위에서 소개한 세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가하면서 영농실체의 윤곽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는 때에 따라

우리가 특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경작지

생산기반(生産基盤)에 관계되는 문제들이다. 농토배양(農土培養)을 위시해서 용수(用水)에 관계되는 일들, 경지정리, 저수량지역(低收量地域)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작부체계(作物體系)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경작지의 이용도(利用度)를 높여 나가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 나가야 할 줄로 안다. 가령 농토배양을 하려는 경우 객토를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운반을 해야 할 것인지, 벧짚 절단기를 써서 10a 당 얼마나 많은 벧짚을 절단해서 논바닥에 깔 것인가, 간척지에서는 석고(石膏)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것인지, 퇴비를 얼마나 낼 것인지, 심경(深耕)은 어느 정도로, 어느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 하겠고 이에 따라 알맞는 준비가 돼 나가야 하겠다. 용수의 경우만 하더라도 모든 수로(水路)를 빠짐없이 손질해 나가야

◇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하겠고, 저수지 보수도 해야 한다. 특히 소류지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 저수량(貯水量)을 늘려 나가야 한다.

② 생산자재

농업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통괄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이 세워짐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생산자재가 구체적으로 부각(浮刻)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재란 생산의 기본이 되는 종묘로부터 모든 영농작업에 관계되는 기계들과 재배에 요긴하게 쓰이는 비료·농약·농기구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하다. 소요되는 생산자재 중에서 소비성을 띠는 것 중에는 해마다 새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적당품목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염가로 구입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병 종자문제만 하더라도 해마다 농수산부에서는 주요작물에 대한 장려품종을 결정 발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하게 탐문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올해에 새로 지정된 장려품종과 변경 폐지되는 품종을 참고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새로운 장려품종 : 벼(천마벼·백암벼·대청벼·중원벼·칠성벼), 걸보리(찰보리), 쌀보리(늘쌀보리),

맥주맥 [두산(斗山) 22호], 호밀(팔당호밀), 콩(백운콩, 방사콩, 새알콩), 팥(충주팥), 옥수수(양주옥), 고구마(진미), 참깨(안산깨, 유성깨), 땅콩(남풍땅콩).

· 장려품종이 준장려품종으로 바뀐 것 : 벼(섬진, 신광, 치약)

· 장려품종이 폐기된 것 : 걸보리(부흥, 향미, 여기), 쌀보리(논산과 1~6호), 콩(봉의, 동북태, 강림), 옥수수(수원21호).

· 준장려품종이 폐기된 것 : 벼(수정영풍, 추풍), 걸보리(수원18호), 밀(새밀, 중국18호).

다음 비료, 농약등 모든 생산자재는 특히 시한적(時限的)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영농작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공급에서 실기(失期)를 해서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부터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지도소와 연락해서 부락단위로 공동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약의 경우 새로운 우수품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소나 농약공업협회 등에 문의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겸해서 늘 영농지도 관계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줄로 안다. 또한 못줄같은 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로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못줄을 알맞게 가리지 않을 경우 감

수(減收)를 자조하게 된다. 즉, 2모작에서 1모작 때 쓰던 못줄을 쓰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소식(疎植)을 하게 되어 소출을 크게 떨어 뜨린다. 따라서 생산자재의 선택 구득은 신중한 검토를 가해야 한다. 이제, 과학농업의 발전에 따라 최근 생산자재는 새로운 획기적인 것이 계속 등장할 해서 증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산자재를 제 2의 농업기술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재의 중요성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3. 일 손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시한부로 영농을 해 나가는 일이 해마다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력화기술(省力化技術)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소요 자재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생력화 기술이란 주로 기계화농업을 위시해서, 새로운 육묘재배, 제초제의 확대사용, 새로운 비배관리등 영농작업을 통한 생력화 방법과 1년간 노력의 균등한 분배를 꾀할 수 있는 영농을 모색하는 경영적인 면을 통

안 생력화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흔히들 영농작업을 통한 생력화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설계에 따라 어떤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생력화 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결정을 해야 하겠고 이에 소요되는 자재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어떻게 개선해서, 공들여 생산한 농산물의 제값을 받도록 할 것인지. 이러기 위해서, 계통출하(系統出荷)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부터 계획해야 하겠고, 시장성(市場性)이 높은 작목을 고르는 문제도 영농계획에 미리 반영시켜야 한다.

예로부터 일년지계(一年之計)는 재어춘(在於春)이라고 일러 내려왔다. 한해동안 할일을 새봄에 세워야 한다는 말로, 농사일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제 해토(解土)를 눈 앞에 두고 올해의 풍요로운 영농실적을 기하기 위해 보다 짜임새 있는 영농설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향에서 생산량을 높이고 제값을 받아낼 수 있는 영농설계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미리부터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 시점(時點)에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새마을운동과 결부되므로써 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